

중등예비음악교사의 교직에 대한 염려 조사

신지혜*

최근 들어 교사 성장과정에서 예비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에 많은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중등예비음악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교직에 대한 염려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중등예비음악교사들의 전반적인 교직에 대한 염려는 어떠한가? (2)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단계에 따른 중등예비음악교사들의 교직에 대한 염려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3) 이전 음악교수 경험에 따른 중등예비음악교사들의 교직에 대한 염려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이를 위해 서울 소재 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93명의 중등예비음악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고 수집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예비음악교사들은 전반적으로 음악교수와 학생에 대한 영향에 대해 가장 높은 염려를 나타냈다. 둘째, 교사교육 단계가 높아질수록 예비음악교사들의 자신에 대한 염려는 줄어들고 음악교수와 학생에 대한 영향과 관련된 염려는 더 많이 나타났다. 셋째, 방과후 수업이나 돌봄 교실을 경험한 중등예비음악교사들은 이를 경험하지 않은 참여자들보다 낮은 염려의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등예비음악교사들이 교직에 대한 세부적인 염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사교육기관의 교과과정 개선의 필요성과 학교 현장과의 협력을 통해 교사교육기간 동안 중등예비음악교사들이 다양한 교수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핵심어 : 교사염려, 중등예비음악교사, 교원양성기관, Fuller와 Bown의 교사염려모델, 교사 성장

*주저자 및 교신저자: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조교수(jhshin99@ewha.ac.kr)

I. 서론

교원양성기관은 예비음악교사들이 교직에 필요한 지식, 기술을 익혀 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춰가는 곳이다. 실제로 초임음악교사들은 교원양성기관에서의 현장실습, 교생실습 등이 교사로서 준비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고(Conway, 2002), 교육 현장의 관리자들과 경력 교사들도 초임교사들이 교원양성기관에서 교실관리나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충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였다고 인식하였다(Coggshall, Bivona, & Reschly, 2012). 이러한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교원양성기관의 개선과 이를 통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Conway, 2002; Im, 2009).

교원양성기관의 양적·질적인 성장을 모색할 때 많은 전문가들은 교사로 준비되기 위해서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고 기술을 연마하는 행동주의적 관점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Devaney, 1978). 즉, 교육과정, 교사자격, 교원양성 정책 등의 물리적이고 외면적인 관심을 확장하여 예비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위치, 관계성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Hur & Jung, 2013). 교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을 탐구하는 것은 교사교육기관의 주체가 되는 예비음악교사들의 관점과 시각에서 좀 더 현실적인 교사교육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교사교육기관에서 예비음악교사들이 어느 정도의 지식을 습득하였는지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변화, 어려움 등을 조사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교사 성장과정에서 예비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사염려는 교사가 인식하는 문제점(Fuller, 1969)이나 교사가 빈번하게 생각하며 고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Reeves & Kazelskis, 1985)으로 정의될 수 있다. 교사가 되는 과정은 복잡하고 때때로 긴장을 유발한다(Fuller & Bown, 1975). 이러한 과정에서 예비음악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를 파악하는 것은 이들이 어떠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점을 어려워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이들의 새로운 생각과 사고를 교사교육기관에서 시도해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Miksza & Berg, 2013). 이는 또한 교사교육기관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Powell, 2014). Fuller(1969)는 이러한 예비교사의 염려가 교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변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예비음악교사들이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단계에서 가지고 있는 고민과 염려는 무엇인지, 이러한 염려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예비교사의 염려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염려의 변화와 관련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우선 몇몇 연구는 교사의 발달과정에서 교수경험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Rice, 2010) 교수경험과 교직에 대한 염려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현장실습과 교생

실습 동안에 예비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예를 들어 Choi(2016)는 초등학교 예비교사들이 수업실연과 교생실습 동안 음악교수에 대해 가장 많은 염려를 나타내었고, 자신과 학생에 대한 영향에 관한 고민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는 것을 밝혔다. Powell(2014)도 비슷하게 교생실습 상황에서 예비음악교사들이 전반적으로 음악교수에 대해 가장 크게 염려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자신에 대한 염려와 학생에 대한 영향에 대한 염려는 비교적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수가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결과는 Berg와 Miksza(2010), Killian과 동료들(2013)의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교생실습 기간 동안과 끝난 후에는 예비음악교사들의 음악교수에 대한 염려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지만 Powell(2014)의 연구와는 다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신에 대한 염려는 감소하고 학생에 대한 영향에 대한 염려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다른 선행연구와 비슷하게 Miksza와 Berg(2013), Youn(2000)이 시행한 연구의 예비음악교사들도 현장실습이 시작되기 전부터 음악교수에 대한 불안감을 가장 많이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염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줄어든 반면, 학생에 대한 염려는 증가했다(Miksza & Berg, 2013). 이러한 결과는 타 과목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발견되었다(Jeon & Han, 2012; Kim & Kwak, 2013). 이에 반해 몇몇 연구에서는 예비교사들의 교육실습 동안 자신에 대한 염려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예비유아교사들은 전반적으로 교육실습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Park, 2009)이나 교사로서 생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고, 이후에는 점차 교사로서 자신의 발전에 보다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Conway & Clark, 2003).

예비교사의 염려와 관련된 선행연구 중 일부는 교사교육기관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나타나는 염려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서 도출된 주요한 점은 예비교사들이 교사교육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학생들에 대한 영향, 즉 학생들이 무엇을 배웠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것이다(Burn, Hagger, Mutton, & Everton, 2003; Campbell & Thompson, 2007). 이러한 염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양상이 증가하거나(Burn et al., 2003), 현장실습을 처음 실시하는 단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다(Campbell & Thompson, 2007).

이처럼 지금까지 예비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에 관심을 기울인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여전히 음악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교생실습이나 현장실습과 같은 음악교수 이외에 과거나 현재 교사교육 프로그램 밖에서의 음악교수 경험과 예비음악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의 음악교사들을 대상으로 단순히 교생실습 전후가 아니라 교사교육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서 이들의 염려와 걱정이 어떠한 흐름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좀 더 세밀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교사교육 프로그램 단계에 있는 중등예비음악교사들의 교

직에 대한 염려를 교사염려모델(Fuller & Bown, 1975)을 사용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세부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중등예비음악교사들의 전반적인 교직에 대한 염려는 어떠한가?
2.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단계에 따라 중등예비음악교사들의 교직에 대한 염려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3. 이전 음악교수 경험에 따라 중등예비음악교사들의 교직에 대한 염려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Ⅱ. 교사염려모델 이론

Fuller(1969)는 교사염려모델 이론을 주장하면서 교사염려발달의 개념화(developmental conceptualization of teacher concerns)를 처음 제시한 학자이다. 교사불안과 염려에 관한 여러 다양한 선행연구와 자신이 직접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2개의 연구를 바탕으로 교사 불안을 3단계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는데, 이는 (1) 염려가 없는 교수 이전 단계, (2) 자신에 대한 염려가 주로 이루어지는 초기 교수 단계, (3) 학생들에 대해 염려하는 후반 단계로 나뉜다.

Fuller와 Bown(1975)은 Fuller(1969)의 연구를 발전시켜 교사염려모델 이론을 3단계로 제시하였다. 각 단계의 세부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 (1) 생존 염려(survival concerns): 이 단계의 염려는 자신의 생존과 관련 있다. 주로 교실통제, 학생과 관리자의 의견, 외부평가 등과 연계되어 있다. 예비교사가 현직교사보다 생존에 대한 염려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 (2) 교수 상황 염려(teaching situation concerns): 이 단계의 염려는 학급의 많은 학생들, 많은 행정 업무, 교수·학습 자료 부족 등과 관련 있다.
- (3) 학생 염려(pupil concerns): 이 단계에서의 교사의 염려는 학습자의 사회적·감정적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것, 학생들을 공정하게 대하는 것, 특정한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과정을 수정하는 것 등과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교사의 염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Fuller, 1969). Fuller와 Bown(1975)은 교사의 염려가 자신에 대한 염려에서 교수 상황에 대한 염려, 학생에 대한 염려의 순으로 변화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예비교사는 자신에 대한 염려에 더 집중하지만 현직교사는 교수 상황과 학생들의 학습에 더 많은 관심과 염려를 드러낸다고 설명하면서 효과적인 교사

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염려를 줄이고 학생에 대한 염려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Borich(2000)는 Fuller와 Bown(1975)의 주장은 이상적이며, 교사들의 염려가 자신, 교수 상황, 학생 순의 일직선 방향으로 항상 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기도 하였다.

예비교사의 염려를 파악하는 것은 이들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교사교육 프로그램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Miksza & Berg, 2013). 이는 예비교사들이 교사가 된 후 교직의 중요한 시점마다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고 교사의 직업적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Fuller & Bown, 1975). 또한 교사들이 자신의 문제점과 염려를 파악 및 인식하고 이를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은 이들의 가질 수 있는 교육의 이상적인 목표와 교육 현실과의 괴리감을 줄여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Miksza & Berg, 2013).

Ⅲ.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A 대학교의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중등예비음악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기관선정의 이유는 첫째, 해당기관이 2015년 교원양성기관 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을 받음으로써 교원양성과정의 내용과 과정에서 우수함을 입증받았기 때문이며, 둘째, 각 기수별 20명 이상의 학생들이 재학 중으로 교사교육 프로그램 단계별로 비교가 가능하고, 셋째, 교사재교육을 위한 현직교사보다는 예비교사의 재학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시행되었던 2017년 6월 말에 해당 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예비음악교사들은 총 105명이었다. 연구자는 1학기의 수업이 모두 끝난 후에 연구자의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에게 면대면으로 설문지를 배부하고, 그 이외의 학생들에게는 온라인으로 설문지를 만들어서 설문지 링크를 이메일과 소셜 미디어로 전송하였다. 그 결과 93명의 학생들의 설문지가 최종 분석 대상이 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동의를 위해 연구자는 설문조사 안내문에 본 연구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 여부가 학생들의 성적이나 학업 과정에 불이익을 미치지 않음을 명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교사교육 프로그램 단계를 살펴보면 1학기 재학생이 25명(26.9%), 2학기 14명(15.1%), 3학기 15명(16.1%), 4학기 16명(17.2%), 5학기 23명(24.7%)이었다. 1학기, 2학기의 참여자들은 교육봉사의 학점을 이수하고 있는 단계이고, 3학기, 4학기 예비교사들은 교육실습을 끝낸 단계이며, 5학기 학생들은 종합시험과 논문을 포함한 졸업에 필요한 필수요건을

끝낸 단계이다.

중등예비음악교사들의 이전 교수 경험이 교직에 대한 염려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 보기 위해 참여자들의 음악교수 경험을 중복응답으로 조사하였다. <Table 1>에 제시된 것처럼 중등예비음악교사의 이전 음악교수 경험은 개인 레슨($n = 83$, 40.1%)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학원 강사($n = 43$, 20.8%), 방과후 수업($n = 27$, 13.0%), 돌봄 교실($n = 21$, 10.1%)의 순이었다.

<Table 1> Participants' Demographic Information

Variable	<i>n</i>	%
Music teacher education program		
1st semester	25	26.9
2nd semester	14	15.1
3rd semester	15	16.1
4th semester	16	17.2
5th semester	23	24.7
Total	93	100.0
Previous music teaching experience		
Private lesson	83	40.1
After school program	27	13.0
Free-semester program	3	1.4
Child care classroom	21	10.1
Community-based arts education program	4	1.9
Private institute instructor	43	20.8
Community children center	8	3.9
Teaching professionals	11	5.3
Other	7	3.4
Total	207*	100.0

*Multiple responses were allowed.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Fuller와 Bown(1975)의 교사염려모델의 이론을 바탕으로 Borich(2000)가 개발한 45문항의 교사염려체크리스트(Teacher Concerns Checklist, TCC)와

Campbell과 Thompson(2007)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한국의 교육상황과 음악교과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서 개발되었다.

본 설문지는 중등예비음악교사의 일반적 특성과 교직에 대한 염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 특성은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현 단계와 이전 교수경험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염려 문항은 자신, 음악교수,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의 3개 영역으로 나누어 개발되었다. 교직에 대한 염려 문항은 각 영역별로 15문항씩, 총 4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문항은 5점 척도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각 영역 당 점수의 분포는 15-75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에 대한 염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연구도구는 Cronbach's alpha .925로 높은 내적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다(<Table 2> 참조).

<Table 2> Survey Construction

Category	Subcategory	Item	Survey questions	Cronbach's alpha
Demographic information	Semester in music teacher education program	1	1	
	Previous music teaching experience	1	2	
Overall concern	Self concern	15	3-2, 3-4, 3-8, 3-9, 3-13, 3-14, 3-18, 3-20, 3-24, 3-26, 3-28, 3-30, 3-32, 3-34, 3-44	.868
	Task concern	15	3-1, 3-3, 3-6, 3-7, 3-10, 3-11, 3-12, 3-16, 3-21, 3-25, 3-27, 3-31, 3-33, 3-40, 3-42	.780
	Impact concern	15	3-5, 3-15, 3-17, 3-19, 3-22, 3-23, 3-29, 3-35, 3-36, 3-37, 3-38, 3-39, 3-41, 3-43, 3-45	.847
				.925

연구도구가 1차로 개발된 후에 타 대학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예비음악교사 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각 문항의 단어 선택, 문장 구성, 내용의 이해도 등을 점검하였다. 그 결과, 문항의 구성 배열, 문장의 길이, 음악교과에 적합한 단어의 수정이 이루어졌다. 최종적으로 개발된 설문지는 2017년 6월말에 배포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1학기 학생들에게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교육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설문지는 1학기가 끝난 직후에 배포되고 수집되었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가 수집된 이후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우선 예비음악교사의 교직에 대한 염려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각 영역별로 평정된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또한 교사교육 프로그램 단계에 따른 염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사후분석으로 Scheffe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이전 음악교수 경험 유무에 따른 교직 염려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사용하여 그 정도를 비교하였다.

IV. 연구 결과

본 연구의 목적은 중등예비음악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교직에 대한 염려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 결과를 전반적인 교직에 대한 염려, 교사교육 단계에 따른 염려의 차이, 이전 음악교수 경험에 따른 염려의 차이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1. 중등예비음악교사의 전반적인 교직에 대한 염려

먼저 중등예비음악교사의 전반적인 교직에 대한 염려를 알아보았다. 각 영역별로 점수의 분포는 15-75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영역에 대한 염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중등예비음악교사들은 약간 높은 교직에 대한 염려를 나타냈다(<Table 3> 참조). 중등예비음악교사들의 교직에 대한 염려 영역 중에서 음악교수에 대한 염려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M=47.61$, $SD=7.51$), 그 뒤를 이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염려($M=47.00$, $SD=7.63$), 자신에 대한 염려($M=44.30$, $SD=9.0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비음악교사들이 교사 자신에 대한 평가, 자질보다는 전반적인 음악수업의 계획 및 운영과 이에 따른 수업의 효과에 더 높은 관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Table 3> Pre-Service Music Teachers' Overall Concerns

Concern category	<i>M</i>	<i>SD</i>
Self concern	44.30	9.06
Task concern	47.61	7.51
Impact concern	47.00	7.63
Total	138.91	21.21

각 영역별로 세부적인 문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신에 대한 염려와 관련해서 수업 장 학 시 수업 운영에 대한 염려($M=3.48, SD=0.97$)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수업을 계획할 수 있는 능력($M=3.43, SD=0.89$), 학생 지도의 능력($M=3.40, SD=1.01$), 수업통제의 능력($M=3.37, SD=0.92$) 문항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Table 4>에 나타난 것처럼 예비음악교사들은 동료 교사나 학부모, 학생들로부터의 평가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음악교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대해 더 많은 불안과 염려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ppendix 1> 참조).

<Table 4> Pre-Service Music Teachers' Self Concern

Self concern	M	SD
Whether the students respect me	3.29	1.15
Doing well when I am observed as I teach	3.48	0.97
Managing my time efficiently	3.00	1.05
Losing the respect of my peers	2.43	1.17
My ability to prepare adequate lesson plans/musical experiences	3.43	0.89
Having my inadequacies become known to others	2.27	0.93
What the principal may think if there is too much noise in my classroom	2.81	1.21
Obtaining a favorable evaluation of my teaching	3.03	1.04
Losing the respect of my students	2.76	0.93
My ability to maintain the appropriate degree of class control	3.37	0.92
Getting my students to behave	3.40	1.01
Having an embarrassing incident occur in my classroom for which I might be judged responsible	3.18	1.09
That my peers may think I am not doing an adequate job	2.00	0.90
Appearing competent to parents	2.87	1.11
Teaching effectively when peer is present	2.98	0.85

중등예비음악교사의 음악교수에 대한 염려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많은 수의 예비교사들은 행정적 지원의 부족에 대한 염려($M=3.61, SD=0.87$)를 나타내었고,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의 지도($M=3.49, SD=1.06$), 행정적 부담($M=3.48, SD=1.04$), 음악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확보($M=3.39, SD=0.87$), 수업시수의 부담($M=3.32, SD=1.24$)에 대한 문항에서도 많은 걱정과 불안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결과에서 나타난 주요한 점은 많은 중등예비음악

교사들이 음악수업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부분보다는 행정적인 일, 학생 지도, 음악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개선 등에 대해 더 큰 걱정을 드러냈다는 것이다(<Table 5>와 <Appendix 2> 참조).

<Table 5> Pre-Service Music Teachers' Task Concern

Task concern	<i>M</i>	<i>SD</i>
Insufficient clerical help for teachers	3.61	0.87
Too many extra duties and responsibilities	3.29	1.11
Not enough time for me to rest and prepare for class	3.06	0.97
Not enough assistance from other subject-matter teachers	3.10	0.92
Not enough time for grading, testing, assessments	2.74	0.94
The inflexibility of the music curriculum	2.97	0.95
Too many standards and regulations for teachers	3.25	0.88
The rigid instructional routine	2.55	1.13
Having too many students in a class	2.95	1.10
Creating support for music programs	3.39	0.87
Not having sufficient time plan	2.97	1.01
Not being able to cope with trouble makers in my class	3.49	1.06
Skills for working with disruptive students	3.44	1.01
Having to do a large number of administrative tasks	3.48	1.04
Planning for too many classes each day	3.32	1.24

<Table 6>의 결과를 살펴보면, 중등예비음악교사의 학생에 대한 영향과 관련된 염려 영역에서는 음악수업의 흥미 유발($M = 3.83$, $SD = 0.92$), 학생들의 음악수업에 대한 가치 인식($M = 3.69$, $SD = 0.98$), 학습자들의 요구에 대한 반응($M = 3.28$, $SD = 0.79$), 학습자들의 잠재성 계발($M = 3.27$, $SD = 0.89$), 진도가 느린 학생들 지도($M = 3.27$, $SD = 0.95$)와 같은 문항들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등예비음악교사들이 음악수업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성취할 수 있는 음악적 경험, 기술, 지식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 즉 음악수업 참여로 인한 즐거움, 음악수업의 역할 등에 대해 좀 더 높은 걱정과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Appendix 3> 참조).

<Table 6> Pre-Service Music Teachers' Impact Concern

Impact concern	M	SD
Helping students to value music learning	3.69	0.98
Increasing students' feelings of musical accomplishment	3.18	0.91
Diagnosing student music learning problems	3.00	0.94
Whether each student is reaching his or her potential	3.27	0.89
Recognizing the social and emotional needs of students	2.96	0.94
Challenging unmotivated students	3.83	0.92
Assisting certain students who make slow progress	3.27	0.95
Understanding ways in which student health problems can affect learning	2.24	0.80
Meeting students' diverse needs	3.00	0.86
Making sure that students learn musical concepts and skills by using a variety of approaches	3.19	0.92
Understanding the psychological and cultural differences that can affect students' behaviors	3.11	0.83
Being flexible to meet the needs of different students	3.28	0.79
Guiding students toward intellectual, emotional, and musical growth	3.03	0.93
The ability of students to apply their learning	2.80	0.90
Being able to motivate students to learn	3.16	0.97

2. 교사교육 프로그램 단계에 따른 중등예비음악교사의 교직에 대한 염려의 차이

본 연구에 참여한 중등예비음악교사들은 교육봉사를 이수하고 있는 1·2학기, 교육실습 직후인 3·4학기, 졸업학기인 5학기의 단계로 나뉜다. 이러한 교사교육 프로그램 단계에 따른 중등예비음악교사의 교직에 대한 염려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7>에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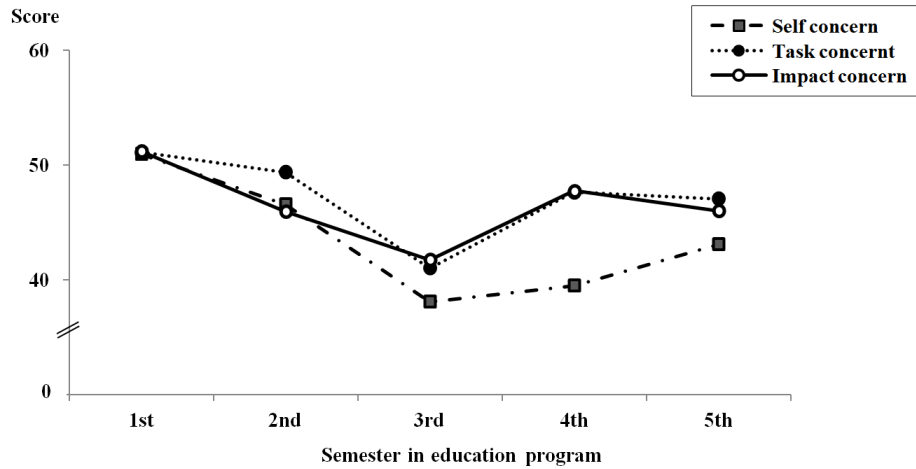
<Table 7> Responses Cross-Tabulated by Semester in Music Teacher Education Program

Concern	Semester in music teacher education program	<i>M</i>	<i>SD</i>	<i>F</i>	<i>Post hoc test</i>
Self concern	1st semester	50.96	6.86	8.847***	c, d < a
	2nd semester	46.57	10.18		
	3rd semester	38.07	9.71		
	4th semester	39.50	5.75		
	5th semester	43.09	7.05		
Task concern	1st semester	51.12	6.11	5.339**	c < a, b
	2nd semester	49.36	6.63		
	3rd semester	41.00	8.79		
	4th semester	47.63	6.26		
	5th semester	47.04	6.87		
Impact concern	1st semester	51.20	6.06	4.470**	c < a
	2nd semester	45.93	4.16		
	3rd semester	41.73	9.09		
	4th semester	47.75	6.15		
	5th semester	46.00	8.60		
Total	1st semester	153.28	15.99	7.612***	c, d < a
	2nd semester	141.86	18.85		
	3rd semester	120.80	26.15		
	4th semester	134.88	9.87		
	5th semester	136.13	20.19		

Notes. a: 1st semester; b: 2nd semester; c: 3rd semester; d: 4th semester; e: 5th semester.
 ** $p < .01$. *** $p < .001$.

분석 결과, 전반적인 교직에 대한 염려의 영역에서 1학기 예비음악교사가 3학기, 4학기의 참여자들보다 높은 수준의 염려($F = 7.612, p < .001$)를 보였다. 자신에 대한 염려 영역에서는 1학기의 예비교사가 3학기, 4학기의 참여자들보다 높은 염려($F = 8.847, p < .001$)를 나타냈고, 음악교수에 대한 영역에서는 1학기, 2학기 예비교사가 3학기 학생들보다 교직에 대한 염려($F = 5.339, p < .001$)를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 또한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영역에서도 1학기 참여자들이 3학기의 예비교사보다 높은 수준의 염려와 걱정($F = 4.470, p = .002$)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결과에서 나타났던 주요한 점은 모든 영역에서 1학기의 중등예비음악교사가 가장 높은 염려를 보인 반면 교생실습 직후의 단계인 3학기, 4학기 참여자들의 염려수준이 가장 낮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염려의 수준은 5학기로 가면서 다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Figure 1>은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단계에 따른 염려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단계가 높아지면서 음악교수에 대한 염려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염려는 비슷한 수준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자신에 대한 염려는 3학기 때 급격하게 낮아지고 4학기, 5학기에도 다른 두 영역보다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의 염려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교사교육 프로그램 초기에 있는 중등예비음악교사들의 교직에 대한 염려의 세부 영역이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지만, 단계가 높아질수록 음악교수와 학생에 대한 영향보다는 자신에 대한 염려의 수준이 더 현격하게 낮아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Figure 1> Responses by semester in music teacher education program

3. 이전 음악교수 경험에 따른 중등예비음악교사의 교직에 대한 염려의 차이

중등예비음악교사들의 이전 음악교수 경험에 따른 교직에 대한 염려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4개의 음악교수 경험 유무에 따른 교직에 대한 염려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Table 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개인레슨과 학원 강사 경험 유무에 따른 중등예비음악교사의 염려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8> Responses Cross-Tabulated by Private Lesson and Private Institute Instructor

Variable	Private lesson		<i>t</i>	Private institute instructor		<i>t</i>
	Yes (<i>n</i> = 83)	No (<i>n</i> = 10)		Yes (<i>n</i> = 43)	No (<i>n</i> = 50)	
	<i>M</i> (<i>SD</i>)	<i>M</i> (<i>SD</i>)		<i>M</i> (<i>SD</i>)	<i>M</i> (<i>SD</i>)	
Self concern	44.42 (9.01)	43.30 (9.91)	-0.368	45.63 (8.10)	43.16 (9.74)	-1.315
Task concern	47.96 (7.37)	44.70 (8.47)	-1.303	48.07 (7.30)	47.22 (7.73)	-0.542
Impact concern	47.23 (7.87)	45.10 (5.13)	-0.832	48.28 (7.23)	45.90 (7.87)	-1.509
Total	139.60 (21.30)	133.10 (20.40)	-0.917	141.90 (19.80)	136.30 (22.20)	-1.296

하지만 방과후 수업과 돌봄 교실에서의 교수 경험 유무에 따른 중등예비음악교사들의 교직에 대한 염려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우선 방과후 수업 경험이 없는 예비교사가 경험이 있는 참여자들보다 자신에 대한 염려 수준이 높았고($t = 2.217, p = .029$), 돌봄 교실에서의 수업 경험이 없는 예비교사가 교수 경험이 있는 참여자들보다 높은 수준의 염려($t = 2.044, p = .044$)를 보였다(<Table 9> 참조). 이는 일대일의 교수 경험보다는 방과후 수업과 돌봄 교실 등 학교의 교실 안에서의 다양한 교수경험이 예비음악교사들의 염려 수준을 낮추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Table 9> Responses Cross-Tabulated by After School Program and Child Care Classroom

Variable	After school program		<i>t</i>	Child care classroom		<i>t</i>
	Yes (<i>n</i> = 27)	No (<i>n</i> = 66)		Yes (<i>n</i> = 21)	No (<i>n</i> = 72)	
	<i>M</i> (<i>SD</i>)	<i>M</i> (<i>SD</i>)		<i>M</i> (<i>SD</i>)	<i>M</i> (<i>SD</i>)	
Self concern	41.11 (9.03)	45.60 (8.81)	2.217*	41.47 (9.35)	45.12 (8.87)	1.638
Task concern	46.78 (8.45)	47.95 (7.13)	0.684	44.71 (8.31)	48.45 (7.10)	2.044*
Impact concern	46.33 (8.07)	47.27 (7.49)	0.537	44.90 (8.65)	47.61 (7.26)	1.438
Total	134.20 (23.30)	140.80 (20.20)	1.317	131.10 (23.60)	141.20 (20.10)	1.949

* $p < .05$.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교사교육기관에 속한 중등예비음악교사들의 교직에 대한 염려를 교사염려모델(Fuller & Bown, 1975)을 사용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중등예비음악교사들은 전반적으로 음악교수와 학생에 대한 영향에 대해 가장 높은 염려를 나타냈다. 이는 교사교육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가장 높은 염려의 영역이었다고 결론을 지은 Campbell과 Thompson(2007)의 연구와 다른 결과이었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예비음악교사들의 음악교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해당 선행 연구에서는 음악교수 영역에서 낮은 염려의 수준이 나타난 이유가 연구에 참여한 예비음악교사들이 음악교수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이에 대한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결론지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자면, 본 연구의 중등예비음악교사들은 음악교수와 학생에 대한 영향의 밀접한 관련성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두 영역에서 비슷하게 높은 염려의 수준을 보인 것으로 여겨진다.

염려의 영역별 세부적인 문항을 살펴보면 본 연구의 중등예비음악교사들은 자신과 관련된 영역에서 교사로서의 자질 등에 초점을 맞췄지만, Campbell과 Thompson(2007)의 예비음악교사들은 주변으로부터의 평가에 대해 더 염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음악교수와 관련된 영역에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선행연구(Campbell & Thompson, 2007; Killian et al., 2013)와 비슷하게 학생관리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이는 음악교수법과 관련된 예비음악교사의 걱정을 강조하였던 Berg와 Miksza(2010)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였다. 또한 학생들의 동기유발에 많은 걱정을 드러냈다는 점은 선행연구(Berg & Miksza, 2010; Miksza & Berg, 2013)와 비슷한 결과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배경이 다른 예비음악교사들이 교직에 대한 비슷한 염려를 드러내기보다는 서로 다른 종류의 걱정과 불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각 나라별, 지역별 교사교육 프로그램에 속한 예비음악교사들의 염려와 걱정을 보다 면밀하게 조사하고 이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도록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과정이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교사교육 단계가 높아질수록 중등예비음악교사들의 자신에 대한 염려는 줄어들고 음악교수와 학생에 대한 영향과 관련된 염려는 더 빈번하게 나타났다. 이는 Fuller와 Bown(1975)이 주장한 염려모델 이론과 비슷하며 선행연구(Berg & Miksza, 2010; Killian et al., 2013; Miksza & Berg, 2013; Youm, 2000)와 비슷한 결과이다. 하지만 중등예비음악교사들의 교직에 대한 염려가 Fuller와 Bown(1975)이 주장하던 것처럼 일직선으로 이루어지거나 각 영역이 단계별로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교사교육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들은 자신보다 음악교수와 학생의 영향에 대해 높은 수준의 염려를 나타냈으며, 이러한 경향은 교사교육이 끝나

는 시점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졌다. Burn과 동료들의 연구(2003)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제시하면서, 예비음악교사들이 처음부터 학생과 음악교수의 많은 염려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국가의 교육과정과 교사교육 흐름의 변화 때문인 것으로 유추하였다. 비슷하게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방법을 강조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이러한 국내 교육의 흐름이 중등예비음악교사들로 하여금 교사교육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자신보다는 학생과 음악교수에 더 집중하도록 한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가 선행연구와 가장 크게 구별되는 점은 교생실습을 연구 직전에 끝마친 3, 4학기 예비음악교사들의 교직에 대한 염려가 다른 학기의 참여자들보다 가장 낮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현장실습 단계에 있는 예비음악교사들의 염려가 가장 높게 나타난 Campbell과 Thompson(2007)의 연구와 다른 점이다. 이는 아마도 본 연구의 조사 시기가 교생실습이 포함된 학기가 끝난 시점이었던 반면, Campbell과 Thompson(2007)의 연구는 학기 중반에 이루어졌다는 차이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자면 참여자들의 염려는 교육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비록 현장실습이나 교생실습이 이루어지는 중간의 예비음악교사들의 염려가 높아지지만 그 과정이 끝난 후에는 이러한 염려의 수준이 현격하게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교사교육기관은 학교 현장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중등예비음악교사들이 교사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단계별, 점진적으로 교육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전 음악교수 경험에 따른 중등예비음악교사의 교직에 대한 염려의 차이를 살펴보면, 방과후 수업이나 돌봄 교실을 경험한 예비음악교사들은 이를 경험하지 않은 참여자들보다 낮은 염려의 수준을 보였다. Berg와 Miksza(2010)도 비슷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서 이전의 교수경험이 예비음악교사들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게 하고 염려의 정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 결과의 주요한 점은 일대일 상황에서의 교수경험은 중등예비음악교사들의 염려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지만 교실 수업의 경험은 교직에 대한 염려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등예비음악교사들이 교육봉사나 교생실습을 경험하는 것 이외에도 방과후 수업, 돌봄 교실 등의 강사로 교수 경험을 지속적으로 쌓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등예비음악교사들이 교직에 대한 세부적인 염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사교육기관의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중등예비음악교사들은 교사로서의 자질과 태도, 학생관리, 행정적인 일, 학생들의 동기유발에 많은 염려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의 동기를 제외하고는 외국의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이었다. 한국의 중등예비음악교사들이 특히 이러한 영역에서 많은 염려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교사 교육기관의 내용과 과정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현장과 긴밀히 협력하여 교사교육기간 동안 중등예비음악교사들이 다양한 교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현장실습 및 교생실습과 이전 음악교수 경험이 예비음악교사들의 교직에 대한 염려의 수준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한국의 교사교육 프로그램에 있는 중등예비음악교사들은 다양한 종류의 학교 환경을 경험하기보다는 일부 교실 환경에 제한된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다. 다양한 교수 상황에서의 경험은 서로 다른 다양한 종류의 교직에 대한 염려를 유발한다(Berg & Miksza, 2010; Miksza & Berg, 2013). 이러한 이유로 미국이나 캐나다의 예비음악교사들은 교생실습의 일정을 계획적으로 나누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모두 경험하거나, 도심과 교외의 학교 등에서 여러 경험을 쌓기도 한다. 따라서 중등예비음악교사들이 본격적으로 교사로서의 일을 시작하기 전 다양한 연령과 학교환경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야기될 수 있는 교직에 대한 염려를 경험하고 해결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현장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들이 초임음악교사로 교수·학습 상황에서 학습지들과 소통할 때 가질 수 있는 현실과 이상과의 괴리를 줄여주고 빠른 시간 안에 학교현장에 적응하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Berg, M. H., & Miksza, P. (2010). An investigation of preservice music teacher development and concerns. *Journal of Music Teacher Education, 20*(1), 39-55.
- Borich, G. D. (2000). *Effective teaching methods* (4th ed.). Upper Saddle River, NJ: Merrill/Prentice Hall.
- Burn, K., Hagger, H., Mutton, T., & Everton, T. (2003). The complex development of student-teachers' thinking. *Teachers and Teaching: Theory and Practice, 9*(4), 309-331.
- Campbell, M. R., & Thompson, L. K. (2007). Perceived concerns of preservice music education teachers: A cross-sectional study.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5*(2), 162-176.
- Choi, M. Y. (2016). An investigation of preservice elementary teachers' concerns on teaching music using Fuller and Bown's teacher concerns model(Fuller와 Bown의 교사염려모델에 기초한 예비 초등교사의 음악교수에 대한 염려 조사).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5*(2), 276-292.
- Cogshall, J. G., Bivona, L., & Reschly, D. J. (2012).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teacher preparation programs for support and accountability*. Washington, DC: National Comprehensive Center for Teacher Quality.

- Conway, C. M. (2002). Perceptions of beginning teachers, their mentors, and administrators regarding preservice music teacher preparatio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0(1), 20-36.
- Conway, P. F., & Clark, C. M. (2003). The journey inward and outward: A re-examination of Fuller's concerns-based model of teacher development.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19(5), 465-482.
- Devaney, K. (1978). *On delivering staff development: Staff development newsletter*. Austin, TX: Professional Development Associates.
- Fuller, F. (1969). Concerns of teachers: A developmental conceptualization.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6(2), 207-226.
- Fuller, F., & Bown, O. (1975). Becoming a teacher. In K. Ryan (Eds.), *Teacher education, Part II: The 74th yearbook of the 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 (pp. 25-52).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ur, E. J., & Jung, S. S. (2013). A study of the research trends on pre-service education studies in Korea(예비교사교육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분석).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51(4), 1-25.
- Im, Y.-K. (2009). Issues and tasks of teacher education evaluation systems in Korea(교원양성 기관평가의 발전 방향과 과제).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26(2), 123-143.
- Jeon, K.-H., & Han, N.-J. (2012). Investigation of duties derived from student teachers experienced in early childhood practicum(예비유아교사의 직무영역 중요도에 대한 인식과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갈등과 지원요구). *Korean Education Inquiry*, 30(3), 41-61.
- Killian, J. N., Dye, K. G., & Wayman, J. B. (2013). Music student teachers: Pre-student teaching concerns and post-student teaching perceptions over a 5-year period.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61(1), 63-79.
- Kim, N. R., & Kwak, K. H. (2013). Changes in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image and conflict as teachers before and after practicum(예비보육교사의 보육실습에 대한 이미지와 갈등의 변화 분석).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13(4), 277-304.
- Miksza, P., & Berg, M. H. (2013). A longitudinal study of preservice music teacher development: Application and advancement of the Fuller and Bown teacher concerns model.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61(1), 44-62.
- Ministry of Education (2015).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curriculum*. Notification No. 2015-80(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5-80호[별책1]).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 Park, E.-M. (2009). A study on the pre-service teachers' anxiety & conflict of practical teaching(예비 유아교사들의 실습불안과 갈등에 관한 연구).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Administration*, 13(4), 195-218.
- Powell, S. R. (2014). Examining preservice music teacher concerns in peer- and field-teaching settings.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61(4), 361-378.
- Reeves, C. K., & Kazelskis, R. (1985). Concerns of preservice and inservice teachers.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78(5), 267-271.
- Rice, J. K. (2010). *The impact of teacher experience: Examining the evidence and policy implications*. Washington, DC: The Urban Institute, National Center for Analysis of Longitudinal Data in Education Research.
- Yourn, B. R. (2000). Learning to teach: Perspectives from beginning music teachers. *Music Education Research*, 2(2), 181-192.

- 게재신청일: 2018. 03. 08.
- 수정투고일: 2018. 04. 21.
- 게재확정일: 2018. 04. 29.

Pre-Service Secondary Music Teachers' Concerns About Music Teaching and Learning

Shin, Jihae*

Recently, there has been a growing focus on the concerns pre-service teachers have as they move through different stages of their teacher preparation programs.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pre-service secondary music teachers' concerns about music teaching and learning. The specific research questions were as follows: (a) What concerns are most common among participants? (b) What are differences in the concerns of pre-service secondary music teachers based on their stage of teacher preparation? (c) What are differences in the concerns of pre-service secondary music teachers based on their previous teaching experiences? A survey was distributed to pre-service secondary music teachers in a university in Seoul, and responses from a total of 93 participants were included in the final analysis. Data analysis indicated that pre-service music teachers experienced more concerns related to teaching tasks and student impact than themselves. Also, as participants progressed through their teacher preparation programs, self concerns decreased while task concerns and student impact concerns increased. Pre-service secondary music teachers who had previously taught in a school had fewer concerns than participants with no teaching experience. Suggestions for how teacher preparation programs can address the concerns of pre-service secondary music teachers are offered.

Keywords : teachers' concerns, pre-service secondary music teacher, teacher preparation program, Fuller and Bown's teacher concerns model, teacher development

*First and 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jhshin99@ewha.ac.kr)

<Appendix 1> 중등예비음악교사의 자신에 대한 염려

자신에 대한 염려 문항	M	SD
학생들이 나를 교사로서 존중하지 않을까 염려 된다.	3.29	1.15
수업 장학 시 수업을 잘 진행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3.48	0.97
음악교사로서 나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3.00	1.05
동료의 인정을 받지 못할까 염려된다.	2.43	1.17
학생들에게 적합한 지도안과 음악활동을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 걱정된다.	3.43	0.89
동료들이 나의 부족한 부분을 알게 될까봐 걱정된다.	2.27	0.93
교장 선생님이 음악 수업 활동이 소란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2.81	1.21
수업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염려된다.	3.03	1.04
학생들의 신뢰를 잃을까 두렵다.	2.76	0.93
내가 수업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3.37	0.92
학생들이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3.40	1.01
내 수업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까봐 두렵다.	3.18	1.09
나의 동료들이 내가 교직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할까봐 염려된다.	2.00	0.90
학부모들에게 유능하게 보여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	2.87	1.11
동료 장학 시 수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 염려된다.	2.98	0.85

<Appendix 2> 중등예비음악교사의 음악교수에 대한 염려

음악교수에 대한 염려 문항	<i>M</i>	<i>SD</i>
교사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부족한 것이 걱정된다.	3.61	0.87
음악교사에게 맡겨지는 많은 일과 책임이 부담된다.	3.29	1.11
수업준비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3.06	0.97
타교과 교사와의 협력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걱정된다.	3.10	0.92
학생 평가를 위한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2.74	0.94
음악과 교육과정이 어렵게 느껴진다.	2.97	0.95
음악과 영역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을 고려한 수업을 계획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	3.25	0.88
엄격한 학교 규칙이 염려된다.	2.55	1.13
수업의 학생 수가 많은 것이 부담스럽다.	2.95	1.10
음악프로그램을 위한 교내·외의 지원과 관심을 얻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	3.39	0.87
수업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두렵다.	2.97	1.01
내 수업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을 적절하게 지도하지 못할까봐 두렵다.	3.49	1.06
학생들의 문제행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 염려된다.	3.44	1.01
교사로서 많은 행정적인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 염려된다.	3.48	1.04
하루에 많은 수업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다.	3.32	1.24

<Appendix 3> 중등예비음악교사의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염려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염려 문항	M	SD
학생들이 음악수업을 가치 있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지 걱정된다.	3.69	0.98
학습자들이 음악적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	3.18	0.91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학습 장애를 진단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	3.00	0.94
음악수업 안에서 개별 학습자들의 잠재성이 계발될 수 있을지 걱정된다.	3.27	0.89
학습자들의 사회적·감정적 필요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	2.96	0.94
음악수업에 흥미가 없는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힘들다.	3.83	0.92
학습 진도가 느린 학습자들을 잘 도와줄 수 있을지 염려된다.	3.27	0.95
학습자들의 건강적인 문제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힘들다.	2.24	0.80
학습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줘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다.	3.00	0.86
학습자들이 음악적 개념이나 기술을 여러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어렵다.	3.19	0.92
학습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적·문화적인 차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3.11	0.83
학습자들의 서로 다른 요구에 적절히 반응할 수 있는 유연함을 가질 수 있을지 염려된다.	3.28	0.79
학생들의 지적, 감정적, 음악적인 성장을 이끌어줘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다.	3.03	0.93
학습자들이 음악시간에 배운 지식을 다른 분야나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지 염려된다.	2.80	0.90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3.16	0.97